

# 개발의 논리와 인간의 삶: 흑인공동체 철거와 생태의 문제 『봉헌된 땅』\*

박 정 만

단독 / 한국의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1800년대 중반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항구도시 핼리팩스 외곽에 흑인공동체 아프리카빌이 들어섰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공동체 아프리카빌은 1960년대 중반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시 당국이 이곳에 시립 쓰레기장을 유치하면서, 상하수도 등 지역의 기본 편의시설 제공이 중단된다. 악취와 들쥐로 가득한 슬럼으로 전락한 아프리카빌은 1964년부터 철거되기 시작하여, 결국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공동체는 1970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노바스코샤 출신 극작가 조지 보이드(George Elroy Boyd)의 극 『봉헌된 땅』 (*Consecrated Ground*, 1999)은 당시 아프리카빌 철거와 주민 400여 명의 이주 문제를 다룬다. 극은 소멸 위기에 놓인 삶의 터전, 인간의 존엄성, 역사와 전통을 지켜내려는 아프리카빌 주민의 눈물겨운 ‘인간의 논리’와 투쟁을 이야기한다. 극은 표면적으로 아프리카빌 철거를 둘러싼 기득권층의 인종적·경제적·정치적 이해와 갈등이 혼잡하게 얽힌 양상을 그린다. 한편 극은 갈등의 저변을 관통하는 생태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린다. 아프리카빌이 번영하던 경제 단위이자 자족적인 인간 생태계에서 슬럼으로 추락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은 쓰레기장 설치, 식수 오염, 들쥐 창궐, 공동체 소멸로 대변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 맺기, 즉 ‘생태’ 이슈가

\*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조지 보이드, 『봉헌된 땅』, 노바스코샤, 아프리카빌, 인간 생태

## 1. 들어가는 글

1848년 캐나다의 노바스코샤(Nova Scotia) 지역의 항구도시 핼리팩스(Halifax) 외곽에 흑인공동체 아프리카빌(Africville)이 들어섰다. 미국 독립혁명(American Revolutionary War, 1775-1783)과 1812년 미·영 전쟁(War of 1812)에서 영국 왕당파를 지지했던 흑인 난민 및 미국 남북전쟁(Civil War, 1861-1865) 당시 노예제를 피해 도망 온 흑인의 후손이 정착하면서 시작된 아프리카빌은 북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흑인공동체로 여겨진다.<sup>1)</sup> 수 세대에 걸쳐 농업사회로 변성하던 아프리카빌은 1960년대 중반 운명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아프리카빌 주민들은 납세자로서 핼리팩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수년 동안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조차 부당하게 거부당했다. 이는 아프리카빌에 시립 쓰레기 집하장을 유지하려는 시 당국의 결정에 다른 것이었다. 쓰레기장이 들어서면서 아프리카빌은 악취가 진동하고 들쥐가 득실거리는 슬럼으로 전락하여 주변 지역으로부터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시는 도시 재생 사업을 명분으로 슬럼 상태의 아프리카빌을 철거하려는 계획에 착수한다. 1964년을 기점으로 철거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1970년 이 지역에 남은 마지막 집이 최종적으로 철거되면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공동체 아프리카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Walker 155).

노바스코샤 출신 극작가 조지 보이드(George Elroy Boyd)의 극 『봉헌된 땅』(Consecrated Ground, 1999)은 당시 아프리카빌 철거 및 400여 흑인 주민의 이주 문제를 다룬다.<sup>2)</sup> 극은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맞서 소멸 위기에 놓인 삶의 흔적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아프리카빌 주민의 눈물겨운 투쟁과 ‘사람의 논리’를 이야기한다.

이 극은 표면적으로 아프리카빌 철거를 둘러싼 기득권층의 인종적·경제적·정치적 이해와 갈등이 혼잡하게 얽힌 양상을 그린다. 한편 극은 표면적 갈등 저변을 관통하는 생태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린다. 아프리카빌이 변형하던 경제 단위이자 자족적인 인간 생태에서 피폐하고 고립된 슬럼으로 추락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은 쓰레기장 설치, 식수의 오염과 부족, 들쥐의 창궐, 그리고 공동체의 소멸로 대변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 맺기, 즉 ‘생태’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작가는 아프리카빌의 소멸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반추하면서, ‘인간 생태’의 중요성과 취약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 2. 아프리카빌: 운명공동체

『봉헌된 땅』은 캐나다 흑인공동체 아프리카빌의 철거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1965년을 배경으로 한다. 극은 마을의 연장자인 사라(Sarah)가 갓난아기 툴리(Tully)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툴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흑인 여성 클라리스(Clarice Leasey)와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된 ‘외지인’ 흑인 윌렘(Willem Lyle)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기실, 사라는 이 부부와 혈연관계도 인척도 아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아온 여성으로, 젊은 세대에게 ‘정신적’ 어머니로 존재한다. 그녀는 지난 세대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의 출생 및 성장을 목도하며 마을의 변화를 지켜온 아프리카빌 역사의 산증인이다. 극 초반에 그녀가 혈연도 인척도 아닌, 심지어 외지 출신을 포함한 젊은 부부의 아이를 돌봐주는 장면은 아프리카빌 공동체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공동체는 혈연과 지연보다 ‘함께 사는’ 관계와 ‘소속감’(belonging)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다. 아프리카빌 주민들은 소위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외지인 출신으로 아프리카빌의 일원이 된 윌렘은 마을 교회에서 성가대 책임자(choir master)로 일한다. 그가 원래 직업인 목수 대신 이 일을 맡는 상황은 아프리카빌에 대한

또 하나의 진실을 말해준다. 바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같은 주요 일자리는 물론 돈벌이가 되는 허드렛일도 모두 백인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의 흑인들은 늘 실직 상태이다. 이들은 돈벌이나 생계와는 상관없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폼앗이’를 하며 산다. 이런 점에서 젊은 부부의 아이를 돌봐주는 사라의 행동 역시 생계와 상관없는 폼앗이의 관점에서 이해되며, 역으로 윌렘의 폼앗이는 아프리빌에 내재한 ‘운명공동체’라는 필요조건적 성격의 결과로 해석된다.

클라리스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집과 토지의 소유권을 외지 출신인 남편에게 위임한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가족의 재산’(family property)을 외지인 출신에게 양도하는 것에 사라는 우려를 표하지만, 클라리스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남편보다 연상인 클라리스는 혹 자신이 먼저 죽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남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남편이 아들 툴리를 잘 부양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클라리스 : 서류에 서명했어요. 모든 것을 윌렘의 이름으로 해두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이와 툴리를 누가 돌보겠어요.

사라: [...] 이 땅은 대대로 너의...

클라리스: 그이는 이제 내 가족이에요, 사라 이모. 나는 윌렘보다 나이가 많구요. 무슨 일이 생기면... 윌렘이야 자기 한 몸 건사는 잘 하겠죠... 하지만 이제 아기가 생겼잖아요, 우리 아들. [...] 토지며 모든 것을 둘의 이름 앞으로 해두었어요.

CLARICE: I signed 'em. I'm puttin' everythin' in Willem's name. See, if anything ever happen to me, him and Tully be taken care of.

SARAH: [...] This land always been in your—

CLARICE: Well this my family now, Aunt Sarah. I'm older than Willem. And if somethin' ever happen to—I know Willem take care of himself—but I got a baby now. I got a son. [...] I signed all the land—everyhin'—over to 'em. (13-14)

클라리스가 강조하듯 윌렘은 “이제 내 가족”(13)이며, 대대로 내려온 가족의 재산을 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라가 혈연에 상관없이 클라리스를 포함한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윌렘도 자연에 상관없이 아프리카인 운명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한 아프리카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책임질 운명을 갖게 된다. 이 지점에서 ‘가족’ 및 “소속감에 대한 대안적 정의가 수립되는”(establishing alternative definitions of belonging, Tompkins 17) 방식이 발견된다. 원초적 고향인 아프리카를 떠난 흑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 다양한 지역과 성장배경을 지닌 이들 이산의 후손이 이곳 아프리카에 유입하여 공동체를 이루었다. 외지인 윌렘 역시 아프리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으며, 이로써 혈연과 자연을 넘어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 가족이 형성된다. ‘함께 산다’는 것이 가족의 충분조건이며, 윌렘은 그렇게 아프리카인의 형제이자 가족이 된다.

### 3. 쓰레기장 옆의 슬럼: 인종차별적 행정편의주의

아프리카인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운명공동체만이 아니다. 이 공동체가 처한 현재 상황은 악취가 진동하고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위험 수위에 달한 “쓰레기장 옆의 슬럼”(slum by the dump, 62)이다. 수 세대에 걸쳐 농사를 일구며 탄탄한 정착지로 번성해 왔던 아프리카에 헬리팩스 시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시는 아프리카인 일대에 시립 쓰레기장을 설치했고, 이와 함께 전기, 상하수도 등 ‘세금을 내는’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편의시설 제공조차 중단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은 들쥐가 득실거리는 슬럼으로 방치되고 고립되었다.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온 땅은 이제 들쥐 소굴이 되었다.

사라: 예야, 난 이곳 아기들을 다 키워냈다. 난 너희들 모두에게 엄마였지. 네 엄마가 일을 나가면 내가 널 돌보았어.

클라리스: 그랬죠... 이모에게도 일이 있었던 셈이죠, 안 그래요? 우리 모두를 돌보는 일이에요. [...] 제게 당근을 먹이셨고.

사라: 그리고 순무도 먹였지.

클라리스: 그런데 이모, 지금은 순무니 당근이니 통 먹을 수가 없답니다! [...] 윌렘이 그러는데 생쥐들이 죄다 잡아먹어버렸다네요.

사라: (웃으며) 세상에! 아프리카빌에 생쥐는 한 마리도 없어, 들쥐라구! 그 놈의 쓰레기장이 들어선 뒤로...

SARAH: Girl I've had all your babies. I been all your mommas. I raised you when your momma was in-service. You was there.

CLARICE: Yeah—I guess you was in-service too, right? To all of us. [...] And made me eat my carrots.

SARAH: And your turnip greens.

CLARICE: And to this day Aunt Sarah, I can't stomach me no turnip greens and no carrots! [...] Willem say they sumpin' the mice nibble on!

SARAH: (Laughing) Good! 'Cause we ain't got no mice in Africville—we got rats!! Ever since that dump... (16-17)<sup>3</sup>

쓰레기장이 들어섬과 동시에 수도 설비가 끊긴 이후로 주민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 먹고, 심지어 쓰레기 폐기물과 들쥐로 오염되었을지 모를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클라리스: 사라 이모, 물은 끓여 드세요? [...] 시 당국에서 “끓여 마시라” 해서 난 끓여 마시는데.

사라: 예야, 난 돌리만할 때부터 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셔왔지만, 아직 끄떡없단다. 시 당국? 여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그놈들이잖니. 쥐는 어떻게. 그런 놈들 말을 믿는 거냐?

CLARICE: Aunt Sara, you boilin' your water? [...] the government say "boil before drinkin'" so I boil.

SARAH: Girl I been drinkin' out that well since I was Tully's size and ain't poisoned me yet. The gov'ment? The gov'ment also put that dump there. Give us all rats. You trust the gov'ment? (17)

시 당국은 ‘물을 끓여 마시라’는 방편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뒷전이다. 쓰레기장 설치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은 아프리카빌의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빌은 들쥐 창궐, 위생 취약, 수질 오염으로 대변되는 주거환경의 교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방식과 활동 양태가 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빌 공동체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공동체가 마주하는 운명의 변화는 소위 ‘인간 생태’(human ecology) 교란의 원인, 과정, 결과를 아우르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선보인다.<sup>4)</sup>

헬리팩스 시는 도시재생 계획에 따라 슬럼화한 아프리카빌을 재개발하려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유니악 스퀘어(Uniacke Square)<sup>5)</sup> 공공주택으로의 이주와 보상금을 대가로 주민들을 퇴거시킨 뒤 이들의 거주지를 철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백인 시청직원 클랜시(Tom Clancy)가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퇴거 각서”(88)를 받아내는 일을 맡아 아프리카빌에 파견되며, 그는 우물에서 물을 길던 사리를 만난다. 둘의 대화를 통해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아프리카빌이 겪고 있는 ‘인간 생태’ 메커니즘 저변에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적 행정편의가 작동하고 있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극을 “환경 정책 결정에서의 인종차별”(165)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린다 홀(Lynda Hall)의 분석은 타당하다. 인간 생태에서 쓰레기의 배출과 폐기는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쓰레기장을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예, 오랜 시간을 거쳐 공청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헬리팩스 시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아프리카빌에 쓰레기장 설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유는 이곳이 흑인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사라: 전에는 여기에 쓰레기장이 없었어, 최근에 들어선 것이지.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쓰레기장인데, 왜 그걸 흑인들이 사는 곳 바로 옆에 설치한다는지? 젊은 양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 백인이 우리 흑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지, 안 그런가?

SARAH: Wasn't no dump here afore, just a recent fixture I tell us. They need a dump, so why not put it right next to where coloured people lives? That make sense to you, Sonny? [...] It got to be seen that the white man then don't think that the coloured is human, right? (31)

사라는 아프리카빌의 상황을 당대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의 산물인 흑인 집단거주지 타운십(township)에 비유한다.<sup>6)</sup> 남아공의 타운십이 백인 거주지 주변에 위치하면서 백인에게 신속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듯, 아프리카빌은 백인이 배출한 폐기물을 해결하는 쓰레기장으로 기능하며 백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곳에 지어진 “도축장”(abattoir, 42)은 백인의 식탁에 올라갈 먹거리를 공급한다. 아울러 시에 출몰하는 들쥐들을 모두 흡수함으로써, 아프리카빌은 백인의 위생과 쾌적한 삶을 도모하는 데 일조한다. 클라리스가 강변하는 것처럼, 아프리카빌의 대기를 메운 악취는 결국 “백인의 악취”(It a white stench, 42)이며, “악취가 그들의 얼굴에 뿌려지듯”(42) 백인의 원죄가 흑인 사회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이미 퇴거 각서에 서명한 지미(Jimmy)가 이삿짐과 함께 시에서 제공한 “쓰레기 트럭”(58)에 실려 마을을 떠나는 장면은 심지어 ‘쓰레기’에 불과한 아프리카빌 주민의 가치를 선명하게 가시화한다. 이처럼 헬리팩스 시의 정책입안자와 행정관리들은 아프리카빌 주민이 거주하는 “허섭스레기 같은 낡은 판잣집”(scraggly ol' shack, 42)을 보고도 오로지 백인의 삶에 대한 고려뿐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범주에 흑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계획하는 인간 생태란 백인의 생태에 다름 아니다. 동시대를 사는 캐나다의 아프리카빌과 남아공의 타운십은 이름만 다를 뿐 인간 생태의 ‘사각지대’(a blind spot)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사라: 아프리카빌은 타운십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야. 자네, 남아프리카의 타운십에 대해 들어봤겠지? [...] 아프리카빌이 딱 그 꼴이지 뭐가! 흑인들을 한 장소에 몰아서 백인 도시 가까이에 두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녀, 집사, 정원사, 청소부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준비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게야. [...] 내 눈엔, 단지 타운십일 뿐이야. 명약관화하지. 타운십처럼 수돗물도 없고, 타운십처럼 배관설비도 없지. 이름만 달랐지, 모든 게 타운십과 똑같아.

SARAH: I figures Africville be just another name for township—you heard of the townships in South Africa, ain't ya? [...] Well Africville be just like that! They put all the coloureds in one place, close to the white city so they got a ready stock of labour, like maids, butlers, and gardeners and cleaners and the like. [...] To me, it just be a township. Plain and simple. No runnin' water lik the townships. No plumbin' like the townships. Everything like the townships 'cept what it be called. (32-33)

사라가 클랜시에게 강변하는 것처럼, 아프리카빌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36). 그러나 이를 무시한 시 당국의 인종차별적 행정편의주의는 “미리 결정된 유럽중심 지형도”(a predetermined Eurocentric terrain)에 흑인 디아스포라가 편입되고 “짜집기되는” 행태와 관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McKittrick 243). 아울러 그 결과로 추진되는 아프리카빌 철거는 흑인들을 “부재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백인의 욕망을 드러낸다(Walcott, “Tough” 39). 백인 도시의 변방 아프리카빌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던 주민들은 백인 생태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공공주택이라는 또 다른 사각지대로 이주함으로써 “투명성”(invisibility)을 연장해 갈 것이다(Tompkins 75).

#### 4. 개발 논리와 인간 생태 교란

아프리카빌 철거 집행을 위해 파견된 시청직원 클랜시는 이 마을에서 영향력이 큰 목사 마이너(Reverend Meiner)를 방문한다. 백인 공무원 클랜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아프리카빌 주민들을 구할 “영웅”(78)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상기한 환경 이면에 있는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묵도한 그는, 현재의 모든 상황이 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와는 무관하게 기득권층의 인종적·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거래”(deal-making, 80)의 결과였음에 눈뜬다. 아울러 애초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인종차별적 행정편의와 관료주의적 거래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클랜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한다. 더욱이 이러한 행정편의와 관료주의를 양산한 기득권 권력에 실은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클랜시는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클랜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윌리엄 클랜시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를 차지한 여당이 제 아버지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큰 정치적 빚에 대한 대가가 저인 셈이죠. 시 당국 누구도 제가 하는 일로 손을 더럽히고 싶진 않을 겁니다. 저를 고용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이죠. 제 아버지의 빚을 갚는 동시에 흑인들도 제거하는. [...] 제가... 이 일을 맡았을 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CLANCY: I got this job because I'm William Clancy's boy—and you better believe it. The party that sits on the government side owes my father some favours. Big, political favours and I'm my father's paycheck. None of the other bastards downtown would dirty their hands with this, you know. By hiring me they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didn't they? I mean they paid off what they owed my father and got rid of the Negroes at the same time. [...] I... when I took this

job I though I could do good. I thought the city was on the up-and-up. But... Reverend, I'm so sorry. So sorry. (78)

양심의 가책으로 변민하는 클랜시에게 목사는 아프리카빌이 겪고 있는 인간 생태 교란의 메커니즘을 상기시킨다.

마이너 목사: 이곳에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 쓰레기장이 들어와 사람들은 이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게 되었지요. 그다음 도축장이 들어왔고. 도축장과 쓰레기장이 들어서니, 자연 냄새를 맡고 들쥐가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요?

REVEREND MINER: The people were here first, boy, then they moved in their new tenant; the dump. Then there's the abattoir. Naturally, along with abattoirs and dumps—right along with them—comes rats. I mean, don't you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78)

인간이 먼저 있었고, 쓰레기장과 도축장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삶의 환경에 들어왔으며, 이는 인간의 거주지에 들쥐를 불러들였고, 결국 인간이 떠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아프리카빌은 소위 ‘들쥐가 인간을 구축하는’(rats drive out humans)<sup>7)</sup> 생태의 역전 상황에 직면한다. 클랜시는 아프리카빌 철거가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말단 공무원이기도 하다. 양심의 가책과 변민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 공무원과 마을 목사의 대화를 통해 상기한 인간 생태 교란의 원인이 ‘저들’로 표현되는 백인을 위한 행정편의주의, 그리고 백인의 요구를 십분 충족하는 시 당국의 ‘개발 논리’에서 비롯되었음을 통찰한다.

클랜시: 저들은 아프리카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선착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새로운 다리를 짓기 위해 아프리카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람

들이 여기 교회 주변에 묻히도록 놔둔다면 저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 저들은 이곳이 묘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이너 목사: 그럼 저들이 묘지를 원하지 않고 소위 판자촌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다른 모든 커뮤니티처럼 아프리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프리빌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유니악 스퀘어를 건설하는 비용이 분명 더 많이 들 텐데 말입니다.

CLANCY: They need Africville 'cause they need more harbor frontage! They need Africville so they can build a new bridge—approach ramps. Reverend, if they allow people to be buried on the site, I mean around the church, it would create problems. [...] They don't want people seeing a gravesite.

REVEREND MINER: Then if they don't want those graves, and if they don't want this so-called shantytown, why don't they fix up Africville like they did every other community?! Surely it's costing them more money to build that Uniacke Square than it would cost to fix up Africville. (80)

클랜시의 말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회와 묘지의 철거가 언급되고 있음이다. 아프리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교회는 주민의 일생과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산증인이었다. 아프리빌 주민들은 출생과 함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목사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며, 죽어서는 교회 묘지에 안치된다. 일상의 경조사를 주관하는 예식의 공간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저장소로, 마을 교회는 아프리빌 공동체와 주민 삶의 구심점이어 왔다. 특히 교회 묘지는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과거의 선조와 앞으로 태어날 인생을 연결하는 아프리빌 연속체, 혹은 “흑인 삶의 미래를 이어주면서” 영구성을 갖는 개념으로 해리슨 폴(Paul C. Harrison)이 지칭한 “아프리카 연속체”(African continuum)의 표상이다(Harrison 5). 극의 제목인 ‘봉헌된 땅’(consecrated ground) 역시 교회의 묘지를 지칭한다. 클라시스가 강변하듯, 그녀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갓난아기 툴리 역시 이 땅에 봉헌되어 또 다른 세대 탄생을 약속할 것

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 묘지 혹은 ‘봉헌된 땅’의 철거는 아프리칸 공동체의 삶, 기억, 기록, 역사, 유산의 소멸을 상징한다.

클라리스: 봉헌된 땅이 아니라면 아프리칸이 뭐란 말인가요, 윌렘? 이 땅은 수년, 수백 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성스럽게 지켜왔어요... 킬 데어 필드에서 웃고 노는 아이들이 이 땅을 지켜왔다고요! 장례식, 교회의 찬송가가 이 땅을 지켜왔다고요, 윌렘. 그들이 살다가 죽은 곳이 여기예요... 그들이 울었던 곳... 그들이 사랑했던 곳이라고요, 윌렘. [...] 아프리칸은 봉헌된 땅이에요!!

CLARICE: What is Africville if it ain't consecrated ground, Willem? (Beat)  
This land been in my family for years, *hundreds a years*... My ancestors, they consecrated this ground... the kids laughing and play'n in Kildare Field consecrated it! The funerals, the hymns at the church, consecrated it... All the baptisms down at the beach, Willem, they consecrated this ground. This is where they lived and died... where... where they cried... where they loved, Willem... loved. [...] Africville is consecrated ground!! (73)

앞서 클랜시와 마이너 목사의 대화를 통해 시 당국이 아프리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개발 사업에만 골몰하는 이유가, 결국 아프리칸의 인간 생태 즉 마이너 목사가 강조한 인간의 “삶의 방식”(47)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와 개발 논리 때문이었음이 확인된다. 클랜시는 이러한 ‘판짜기’의 말단에서 조직의 하수인이 되어 “거짓말과 해명과 재해명”(all this lying—this explaining and re-explaining, 80)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실망한다. 그가 “이 모든 거래”(80)에 대한 염증을 토로하는 이유이다. 상기한 ‘거래’는 아프리칸의 생태 교란과 파괴를 초래한 인종주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와 결합한 맹목적 개발 논리에 대한 은유가 된다.

## 4. 나가며

극은 클라리스와 윌렘의 아들 툴리의 장례식으로 마감된다. 어느 날 밤 클라리스는 툴리에게 분유를 타 먹일 물을 길기 위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기를 홀로 놔두고 집을 나선다. 엄동설한에 얼어버린 펌프를 보고 클라리스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이, 여태껏 컵가를 울리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친다. 그렇게 아기는 세상과 작별한다. 아프리카 빌이 철거되면서 툴리를 묻을 공간 역시 상실된다. 시에서는 시립 묘지를 권하지만 클라리스는 조상들이 대대로 묻힌 아프리카 빌의 땅에 툴리를 묻기를 고집한다. 결국 파묘하여 드러내어질 운명이지만, 툴리는 아프리카 빌 교회 안마당에 안장된다.

극의 대미를 장식하는 툴리의 장례식 장면은 사리가 툴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극의 도입부를 환기시킨다. 이처럼 극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툴리의 생애주기를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빌의 생애주기에 대한 묘한 아날로지가 된다. 아프리카 빌의 “마지막 후손”(the last of the line, Clarke “Afro-Gynocentric” 79) 툴리가 육체적 생은 다했지만 아프리카 빌의 ‘봉헌된 땅’에 묻혀 먼저 가신 조상들과 조우하고 남은 자들의 마음속 영원히 기억될 것이듯, 아프리카 빌 또한 철거되어 사라지지만 외지로 흩어질 아프리카 빌 ‘이산자’의 마음에 영원한 고향으로 남을 것임을, 그리고 이러한 ‘연결됨’ 혹은 ‘소속감’이 아프리카 빌의 유산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툴리가 교회 묘지에 안장되는 장면은 공동체를 이어가야 할 주민의 “공동 책임”(communal responsibility)에 대한 표출이자(Elam 118), 인종주의에 맞서는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긍정”(the affirmation of self and community)의 표현으로 해석된다(Nothof 102).

그러나 상기한 소속감은 마음의 위안으로만 남을 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프리카 빌 주민들의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1970년 1월 2일 마지막 남은 집이 철거됨으로 아프리카 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sup>8)</sup> 하나의 인간 생태가 소멸한 것이다. 이로부터 40년 뒤인 2010년 2월 24일, 헬리팩스 시는 흑인공동체 아프리카 빌의 철거 및 파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사과의 표시로 1969년에 철거되었던 아프리카 빌 교회

(Africville Church)가 2011년에 재건되었다. 하지만 “정복되지 않는 흑인 정신의 상징”(Walker 155)인 교회의 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아프리카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빌 터에는 현재 머레이 맥케이 다리(A. Murray MacKay Bridge)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들어섰고, 아프리카빌의 인간 생태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런 점에서, 극을 종결짓는 갓난아기 툴리의 장례식 장면은 “2세대의 종결” 혹은 “대가 끊김”에 대한 표상이자(Clarke, “Afro-Gynocentric” 61), “공동체 해체의 비극”에 대한 상징이 된다(Fossen 92). 엄마 클라리스는 아들 툴리를 교회 묘지에 ‘봉헌’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산을 이으려는 ‘정신 승리’를 보여주지만, “이는 공허한 승리일”(this triumph is empty, Clarke “Making” 72) 뿐이다. 아프리카빌은 주민과 후손의 “기억에만 존재”(Walcott, *Black* 44)하고 출몰하는 “유령도시”(ghost town, Clarke “Making” 72)가 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빌의 소멸은 환경과 인간의 관계 맺기 혹은 ‘생태’의 중요성과 함께 그 취약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촉구한다. 이는 아프리카빌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전히 안타까움과 미련을 남기는 이유이자, 문학을 통해 이 흑인 공동사회가 회고되고 반추되는 이유이다.

---

#### Notes

- 1) 캐나다에 흑인이 정착한 것은 17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Mensah 44). 이후 미국 독립혁명과 미·영 전쟁을 기점으로 이스트 코스트(East Coast), 특히 노바스코샤 지역으로 흑인의 유입이 본격화되었다(Wyile 114). 기실 아프리카빌에 흑인이 유입된 것은 미·영 전쟁의 흑인 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1812년경으로 추정된다. 이후 1848년에 이 지역 최초의 흑인 토지 권리증이 등록되었는데, 이것이 아프리카빌 역사의 공식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이듬해인 1849년에는 침례교회가 세워졌으며, 1851년 무렵 아프리카빌 인구는 54명으로 집계된다(Walker 156).
- 2) 이 극은 1999년 1월 14일 헬리팩스의 제임스 던 극장(Sir James Dunn Theatre)에서 이스턴 프론트 극단(Eastern Front Theatre Company)에 의해 초연되었다(Tompkins 24; Barton 102). 작가 보이드는 아프리카빌의 정신적·역사적 상징이자 주민들에게 “삶의 중심적 실체”(a central fact of life)인 아프리카빌 침례교회(the Seaview Baptist Church)가 철거되는 장면을 상상하다가 “신성모독의 이미지”(an image of desecration)를 떠올렸고, 이것

이 작품의 제목 ‘봉헌된 땅’(consecrated ground)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슬회한다(Nurse 97). 이 극은 2020년 캐나다연방총독상(Governor General's Literary Awards) 후보에 올랐다. 보이드는 최근 2020년 7월 7일 향년 68세로 별세했다.

- 3) 위 대화에서 ‘일하는 엄마’(momma in-service)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는 당시 노바스코샤 흑인공동체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작가 보이드에 따르면, 극의 배경이 된 1960년대 이 지역의 흑인 남성들은 거의 실직 상태였다. 이는 극 중 윌렘이 본업은 목수일 대신 마을 교회의 성가대 책임자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반영된다. 당대 대부분의 백인 가정은 덜 위협적인 흑인 여성들을 고용했고, 결과적으로 흑인 여성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노바스코샤 출신인 보이드 역시 유년 시절을 “모계 공동체”에서 보냈다고 슬회하면서, 이러한 환경을 극에서 묘사하려 했다고 밝힌다(Fosson 96)
- 4) ‘인간 생태’는 인간이 삶과 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적·사회·건축 환경(natural, social, built environment)을 지칭한다(“Human Ecology”). 인간 생태의 주요 관심사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양상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인간 삶과 활동—인간의 가치, 재산, 생활방식, 자원의 이용과 폐기 등을 포함하는—의 변화이다(McDonnell 1233). ‘인간 생태’라는 용어는 엘렌 리처즈(Ellen H. Richards)의 1907년 저서 『일상의 위생』(*Sanitation in Daily Life*)에 처음 등장해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환경에 대한 연구”(the study of the surroundings of human beings in the effects they produces on the lives of men)로 정의되었는데(Richards, v), 이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일부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받는다(Merchant 181). ‘인간 생태’는 1921년 시카고대학이 출간한 『사회학 입문』(*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에서 등장함으로써 사회학 용어로 공식 등재되었고, 이후 인간 생태학은 인간 사회의 “문화적 진화”(cultural evolution)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반 물리학적/생물학적 생태학과 차별되는(Young 9) 사회학의 하위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다.
- 5) 유니악 스퀘어는 노바스코샤 주 헬리팩스의 북쪽 중앙에 위치한 공공주택 단지이다. 1966년 5월에 250가구 규모로 개장한 이 시설은 1964년에서 1967년에 걸쳐 도시재생 계획의 일환으로 철거된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지어졌다(Kimber).
- 6) ‘타운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시절 흑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집단거주지로, 백인이 사는 도심 주변부에 지어졌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공의 백인 정권에 의해 1948년 합법화되었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994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타운십은 현재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흑인 대부분이 이곳에 거주한다.
- 7) 이 표현은 16세기 영국의 금융·재정가 토머스 그레섬(Thomas Gresham, 1519-1579)이 남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유명한 말에서 착안한 표현이다. 그레섬의 이 말은 일명 ‘그레섬의 법칙’(Gresham's Law)으로 통용된다.
- 8) 아이러니하게도 클라리스와 윌렘 부부는 시에서 약속한 유니악 스퀘어 공공주택 입주를 거



부당하다. 이 주택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 단위 입주로 계획된 것으로, 아들의 사망으로 부부는 요구되는 ‘가족’ 구성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부의 미래는 정착 없는 ‘유랑’의 삶을 예견하며, 이는 아프리카 주민의 디아스포라 연속체(diaspora continuum)가 지속할 것임을 암시한다.

## 인 용 문 헌

- Barton, Bruce. "Redefining 'Community': The Elusive Legacy of the Dramatists' Co-op of Nova Scotia." *Theatre Research in Canada*, vol. 21, no. 2, Fall 2000, pp. 99-115.
- Boyd, George. *Consecrated Ground*. Talonbooks, 2011.
- Clarke, George Elliott. "Making the 'Damn' Nation the Race's 'Salvation': The Politics of George Elroy Boyd's *Consecrated Ground*." *Kola*, vol. 15, no. 2, 2003, pp. 69-73.
- "Afro-Gynocentric Darwinism in the Drama of George Elroy Boyd." *Canadian Theatre Review*, vol. 118, Spring 2004, pp. 77-84.
- Elam, Harry J. Jr. "Book Review: *Testifyin': Contemporary African Canadian Drama, Volumes 1 and 2*. Edited by Djanet Sears, Playwrights Canada Press, 2000." *Canadian Theatre Review*, vol. 118, Spring 2004, pp. 117-19.
- Fossen, Rachael Van. "A Particular Perspective: (Re)Living Memory in George Boyd's *Wade in the Water*." *African-Canadian Theatre*, edited by Maureen Moynagh, Playwrights, 2005, pp. 92-106.
- Hall, Lynda. "Book Review: *Consecrated Ground*." *Canadian Ethnic Studies*, vol. 32, no. 2, 2000, p. 165.
- Harrison, Paul C., editor. *Kuntu Drama: Plays of the African Continuum*. Grove Press, 1982.
- "Human Ecology: People and Environment." Department of Human Geography, Lund University. December 21, 2016. Web.  
<https://www.keg.lu.se/en/education/academics/subjects/human-ecology>.
- Kimber, Stephen. "Inside the Square." *The Coast*, 1 March 2007.  
<https://www.thecoast.ca/halifax/inside-the-square/Content?oid=960417>.

- McDonnell, M.J., and S.T.A. Pickett.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Along Urban-rural Gradients: An Unexploited Opportunity for Ecology," *Ecology*, vol. 71, no. 4, 1990, pp. 1232-37.
- McKittrick, Katherine. "Wait Canada Anticipate Black." *The CLR James Journal*, vol. 20, no. 2/1, Fall 2014, pp. 243-49.
- Mensah, Joseph. *Black Canadians: History, Experience, Social Conditions*. Fernwood Publishing, 2002.
- Merchant, C.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An Introduction*. Columbia UP, 2007.
- Nothof, Anne. "Representations of the Self and the Other in Canadian Intercultural Theatre." *Selves and Subjectivities: Reflections on Canadian Arts and Culture*, edited by Manijeh Mannani and Veronica Thompson, Athabasca UP, 2012, pp. 95-114.
- Nurse, Donna Bailey. "Consecrated Ground." *What's a Black Critic to Do?: Interviews, Profiles and Reviews of Black Writers*. Insomniac Press, 2003, pp. 96-97.
- Richards, Ellen H. *Sanitation in Daily Life*. Whitcomb and Barrow, 1907.
- Tompkins, Joanne. "Urban Entanglements in Three African Canadian Plays: Lorena Gale's *Angélique*, George Boyd's *Consecrated Ground*, and Andrew Moodie's *Riot*." *Theatre Research in Canada*, vol. 30, nos. 1-2, 2009, pp. 17-36.
- Walcott, Rinaldo. "'A Tough Geography': Towards a Poetics of Black Space(s) in Canada." *West Coast Line*, vol. 31, no. 1, 1997, pp. 38-51.
- . *Black Like Who?: Writing Black Canada*. Toronto: Insomniac Press, 1997.
- Walker, James W. St. G. "Allegories and Orientations in African-Canadian Historiography: The Spirit of Africville." *Dalhousie Review*, vol. 77, no. 2, 1997, pp. 155-78.

Wylie, Herb. *Anne of Tim Hortons: Globalization and the Reshaping of Atlantic-Canadian Literature*. Wilfrid Lauries UP, 2011.

Young, G.L. "Human Ecology as an Interdisciplinary Concept: A critical Inquiry." *Advances in Ecological Research*, vol. 8, 1974, pp. 1-105.

## Abstract

### Development Logic and Human Life: Demolition of Black Community and Ecological Issues in *Consecrated Ground*

Jungman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mid-1800s, a black community Africville was established on the outskirts of Halifax, a port city in Nova Scotia, Canada. Africville, the oldest black community in North America, faced a change in fate in the mid-1960s. The city authorities decided to built a municipal dump in Africville, and accordingly the basic facilities of water and sewage system were stopped. Africville fell into an slum infested with rats, began to be demolished in 1964, and eventually disappeared into history in 1970. Nova Scotia playwright George Boyd's play *Consecrated Ground* (1999) deals with the demolition of Africville and the migration of 400 residents. The play tells about the Africville people's tearful 'human logic' and struggles to preserve their place, history and heritage from extinction. On the surface, the play depicts the entangled ra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surrounding the demolition of Africville. In a deeper level, it touches on a more fundamental issue of ecology. The historical moment of Africville's disappearance is intertwined with human ecology, or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environment, represented by garbage dumps, lack of drinking water, and outbreaks of wild rats as depicted in the play.

**Key Words:** George Boyd, *Consecrated Ground*, Nova Scotia, Africville, Human Ecology

논문접수일: 2021.04.19

심사완료일: 2021.06.07

게재확정일: 2021.06.25

이름: 박정만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부교수

주소: (우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부

이메일: jungmany@gmail.com